[스토리 – 모험가]

- 과거

공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공학자에 길을 걷던 중 어느 날 모험가들이 슬라임을 들고 찾아와 인간이 슬라임으로 변하였다는 이야기와 같이 찾아온다. 아버지와 같이 일시적이지만 슬라임으로 변한 인간들을 다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하는 변환기를 발명하였다. 발명을 하는 동안 모험가들의 지금까지 있던 여러 모험 이야기를 듣고 본인 또한이들과 같이 세계에 뛰어들고 싶다는 갈망이 싹이 튼다.하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심하여 부자간에 충돌이 생긴다. 아버지의 생각이 완고하여 돈이 된 만한 것과 변환기를 가지고 모험가가 되기 위해 뛰쳐나와 모험가로서 명성을 쌓아 간다.

- 시간의 신전

모험가 길드에서 최근 시간의 신전에서 이상한 소리와 인기척이 느껴진다며 조사를 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시간의 신전에서 강렬한 빛에 의해 정신을 잃어버렸다. 경비행기는 그대로 깊은 숲 방향으로 추락한다. 이후 자신이 슬라임으로 변하게 된 걸 알게 되고 변환기가 무사하다는 걸 알게 되고 안심한다.

이후 신전 여러 곳에 장식물들을 해제해 아이템을 모으며 신전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신전에 있는 여러 기믹과 골렘이라는 난관을 클리어한다. 신전에서 누군가 있던 흔적을 발견하고 흔적을 쫓아 급조한 스쿠터로 깊은 숲 방향으로 향한다.

[신전을 돌면서 부품과 여러 기믹 그리고 누군가의 흔적을 찾아야됨]

\* 흔적

- 깊은 숲

깊은 숲 입구로 향하자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불에 타버린 모습이 보였다. 모험가는 비행기가 추락 시 가방에 있던 쉐이더에 화염구슬이 그대로 이 깊은 숲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며 골머리를 감싸던 중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도망을 친다. 이후 자신을 공격한 무리가 신전에서 빛을 뿌리던 존재인 줄

알았으나 엘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조사에 협력을 구하려 했으나 숲 의 불을 지른 원흉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또다시 골머리를 감싸며 엘프를 피하며 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이후 분노한 엘프들과 장로 엘프와 싸움을 하게 된다.

\* [쉐이더의 화염구슬을 일정 개수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숨은 보스 정령사와 싸우게 됨]

이후 싸움이 끝나고 엘프 마을에서 장로에 딸이 납치당한다. 이때 납치범 중 하나를 붙잡게 된다. 로브 무리들에 정체가 요즘 떠들썩한 광신도 들인걸 알게 되어 이제 길드에 돌아가 보고하려 했지만, 장로가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한다. 구해 줄 시 지금까지 있던 일은잊어주겠다 하여 추가로 의뢰를 받게 된다.

[장로에 딸은 광신도들이 찾는 인물중 한명]

3.광신도의 본거지(왕성 = 솔라리온)